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7. 9.(금) 08:3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044-215-2830)	담당자	김금비 사무관 keumb@korea.kr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 심규진 (044-215-2750)		이재현 사무관 jaeheon7@korea.kr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천재호 (044-215-4510)		심승미 사무관 shimsm0302@korea.kr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장 이보인 (044-960-6160)		서지현 사무관 jjhopes@korea.kr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디지털뉴딜팀장 김우철 (044-960-6170)		신대원 서기관 recallme@korea.kr
			손진철 사무관 sonkcc@korea.kr

제목: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역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9(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① 서민 금융지원 대책 점검 및 추진계획(금융위, 제목만 공개)
- ②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기부, 제목만 공개)
- ③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해운분야	(해수부)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환경분야	(환경부)
관광분야	(문체부)	디지털분야	(과기부)
의식분야	(농식품부)	행정분야	(행안부)
수출입분야	(산업부)	공정거래분야	(공정위)
고용분야	(고용부)	통계분야	(통계청)
교통분야	(국토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길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개최배경 】

제23차 정책점검회의¹⁾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다’ 라는 마음자세가 다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주 들어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힘들게 이어온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킬 수 있도록
방역의 경제감을 높이는 한편,
코로나로 확대된 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안전망 확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조기시행('21.10월),
긴급복지 요건 완화 등 신속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하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 다변화 및 공급 확대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한편,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이었던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은
국제사회로부터 호평²⁾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집중과 격차 확대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판 뉴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사람 투자를 강화하고,
격차 해소 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이러한 코로나 격차 완화와
미래 대비에 대한 정책의지를 담아

❶ **서민 금융지원 대책과 추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주요과제인

❷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OECD: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친환경적·포용적 경기회복 뒷받침 평가
Bloomberg: 뉴딜을 통해 경제를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의지 피력

【 서민 금융지원 대책 점검 및 추진계획 】

첫 번째 안건은 서민 금융지원 대책 점검 및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심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약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층층한 보완 방안³⁾도 추진 중입니다.

우선, 7.7일부터 20%를 초과하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상품인 안전망대출Ⅱ를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최저신용자 대상의 햇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p 인하하여
햇살론15를 출시하였습니다.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⁴⁾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3년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3) ①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3.31) ②대부업 제도개선(4.1) ③중금리대출 제도 개선(4.26)
4) 사잇돌대출(하위 30% 차주에 70% 이상 공급) 및
민간중금리 대출(하위 50% 차주에게만 공급) 요건 개편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4개월간(7.1~10.31일)
법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 원스톱(One-Stop) 대환대출이 가능한
소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과제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좌우할 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AI 서비스 개발의 핵심 밑거름인 대규모 데이터가 필수 자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데이터 댐’의 핵심 과제로
대규모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구축한 음성, 자율주행, 헬스케어, 안전, 국토환경 등
8대 분야 170종, 총 4억8천만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금년 6월에 개방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방한 데이터는 산업계, 전문가, 많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기업, 대학, 병원 등
총 670여개 기업·기관이 데이터 기획·구축에 참여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축 과정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클라우드소싱 방식을 도입해 4만여개의 일자리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성, 텍스트, 이미지 등의 데이터 규모는
해외 데이터 셋과 비교해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는 약 1억4천만장의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금년에는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총 190종의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고, '25년에는 1,300여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데이터도 널리 활용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대규모로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활용기관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지난달 대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여 출범한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허브의 검색체제를 개편하는 등
플랫폼을 이용자 친화적 활용 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품질의 인공지능 데이터들이 산업 곳곳에 스며들어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창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코로나 상황이 엄중합니다.
방역 수칙 준수 등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